

[기획]

온누리안 리포트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2> 담양의 필리핀 영어 교사들

필리핀에서 초등학교 교사였던 엘레사벳 레이보(여·49·한국명 김유진)씨는 지난 1998년 한국에 시집은 이후 가정주부이자 어엿한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출강'하는 학교는 금성·무정·남면 초등학교 등 3개 초등학교의 4개 반. 비정규직이지만 방학을 제외하면 20시간 씩 영어를 가르치며 시간 당 3만5천원의 고정 수입도 생겼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보람은 필리핀 부키는 주립대(Bukodnon state college)에서 초등교육학을 전공하고 초등교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릴 수 있게 된 점이다.

레이보씨는 "한국에 시집오고 몇 년 간은 각종 제사와 집안 행사 등 한국의 가족적 행사를 도맡느라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었다"며 "일을 하게 되고, 경제적인 능력을 갖게 되면서 이전 한국 생활이 신나다"고 말했다.

이처럼 농촌의 '영어학 외국인 머느리'들을 원어인 영어 강사로 채용하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빠른 적응에 도움>=지난 1996년 한국에 시집온 마리셀 엠베카(35·담양군 무정면)씨의 경우, '한국적 머느리'의 역할이 낯설었다. 시부모 봉양·남편내조·육아를 모두 맡는 '여성 희생형' 한국적 가족관은 필리핀의 모계 중심 가족관과 달랐기 때문이다.



원어인 영어강사로 활동하며 농촌지역 영어교육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필리핀 출신 국제결혼 이주여성들. 이들에게선 농촌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묻어난다. 왼쪽부터 라일라 제사사 파블로, 마리셀 물리에서, 엘레사벳 레이보, 마리셀 엠베카. /최혜배기자 choi@kwangju.co.kr

'외국인 아줌마'서 '어엿한 선생님'으로

“한국말 빨리 배웠더니 직업 생기고 생활 여유 우울증 모두 없어지고 이젠 한국생활 신나요”

그러나 지난 2004년부터 '직업'을 갖게 된 엠베카씨의 생활은 급속도로 변했다. 현재 용면·한재·남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는 주변에서 '커리어 우먼'으로 통한다.

남편·아이와 관계도 좋아져

무엇보다 '한국'을 다시 인식하게 됐다. 엠베카씨는 "외국 출신 선생님이지만, 한국말을 잘 하면 아이들이 안정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아이들이 수업을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한국의 문화·교육적 특성도 빨리 익히게 됐다"고 말했다.

<경제적 안정 찾아>=외국인 신부·머느리를 맞이하는 가정의 경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

은 농가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왔던 외국인 신부들은 농사일과 각종 허드렛일을 도맡아야하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했다.

엘레사벳 레이보씨는 "강사로 일한 이후 한 달 2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생겼다"며 "남편의 수입은 모두 저축하고, 내가 번 돈으로 생활비·아이들 교육비를 충당해 생활에 훨씬 여유가 생겼고, 남편·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한국인' 소속감 강화>=필리핀에서 영어 교사로 일했던 마리셀 물리에서(36·담양군 월산면)씨는 지난 2000년 한국으로 시집 오며 영어 강사로

계속 일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는 예정보다 빨리 달성될 수 있었다.

경기도 오산의 한 보습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게 된 것이다. 물리에서씨는 주변 교사들의 교습법을 어깨 너머로 살펴 '한국식 교육 방법'을 몸소 체득했다.

농촌 영어교육 활기 불어넣어

물리에서씨는 "현재 임시 9개월인데, 수업시간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며 영어를 가르치는게 너무 재미있다"며 "태교에도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편 차씨는 "필리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영

어를 가르치던 아내의 재능이 한국에 오며 묻힐까봐 걱정했다"며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말 빨리 배우도록 한 것이 빠른 적응의 방법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농촌·소의 계층에도 도움>=농촌 지역 학생들의 경우 제대로 된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기회가 적절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원어인 교사의 투입으로 아이들은 영어의 기초를 다지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리일라 제사사 파블로(30·담양군 담양읍)씨는 "수업이 모두 영어로 진행돼 어려서부터 영어에 익숙한 필리핀과 달리 따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한국 아이들은 놀이·노래·도구를 이용한 수업에 흥미를 느끼는 것 같다"며 "효과 있는 수업 방법을 익힐 때마다 동료 교사들과 교류하곤 한다"고 말했다.

마리셀 엠베카씨는 "가장 적게 가르치는 반의 학생 수는 20명인데, 학생들의 반응을 일일이 체크하고 한명 한명에게 질문을 하며 수업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수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서울 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 사육.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2월 1일 첫진도 시작반(주간반, 야간반).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야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 1위! 새롬행정고시학원 361-8111

상가·사무실 임대. 위치: 유동로터리 30m도로편, 상업지역. 5층건물(4, 5층 임대완료), 각층당 165평(분할가능). 임대보증금의 60%, 은행대출할선. 용도: 병원, 전시장, 학원, 사육, 사무실, 대형병원, 대형식당 등 다용도 가능. 문의: 528-1031, H.P 016-609-1031, 017-609-7968, 010-7623-1100

Real estate listings grid. Includes sections for '대인동심일부동산', '정우부동산', '중개법인 리치부동산', '빛고을랜드공인중개사', '첨단월계공인중개사', '국민공인중개사', '무등공인중개사', and '알파공인중개사'. Each listing provides details on property type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